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空形態의 설정과 非文法化—

김 영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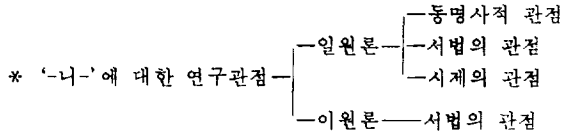
1. 머 리 말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니-’는 자료를 해석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기술되었다.¹⁾ ‘-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은 크게 일원론적인 관점과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나뉜다. 전자는 평서문이나 의문문 등에 나타나는 ‘-니-’를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적인 동일성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후자는 형태적인 동일성보다는 구조적인 동일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평서문의 ‘-니-’와 의문문의 ‘-니-’를 다르게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일원론적인 관점은 다시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니-’를 ‘-니+이-’로 분석하여 아예 ‘-니-’를 설정하지 않는 동명사적 관점이 있는가 하면,²⁾ 서법의 형태소로 보는 서법의 관점,³⁾ 시제(때매김)의 형태소로 보는 시제의 관점⁴⁾ 등이 있다. 이원론적인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 종래의 형태 위주의 문법기술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구조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⁵⁾

* 박사과정

- 1) 선어말어미 ‘-니-’에 대한 연구사적인 정리는 고영근(1981:93-4)를 참조할 것.
- 2) 김완진(1957), 임홍빈(1982)를 참조할 것.
- 3) 이승녕(1961=1983)을 참조할 것.
- 4) 허 용(1975:877-8, 882-87, 905-22), 나진석(1978:245-57)을 참조할 것.
- 5) 이 글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이란 논의의 편의상 필자가 도입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고영근(1981:29-32)의 접근방법을 말한다.



이 글은 위에서 제시된 '-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기존의 연구업적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일원론적 관점

2.1. 동명사적 관점

서술어적인 용법의 '-nira'에서 'n'을 동명사형어미로 보는 관점이다.

(1) 아츠미라 흐느니라(월인석보 2:50)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흐느니라'가 '흐느+이라'로 분석되므로, 선어말어미 '-니-'는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명사적인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ㄴ'이 주어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일이 없다. '-ㄴ'이 진정한 동명사형어미라면 주어의 위치에 나타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흐느니라'에서 'ㄴ'을 분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근거가 없다. 'ㄴ'이 빠진 '*흐느라'가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일이 없으며, 고대국어에서 동명사형어미로 간주되는 '-ㄹ, -ㅁ'이⁶⁾이 위치에서 'ㄴ'과 대치되어 '*흐느리라, *흐느미라'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흐느니라'에서 'ㄴ'을 분석할 수 있는 구조적 근거가 없다.

'흐느니라'는 '흐+느+니+라'로 분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

(2) 아츠미라 흐느니라(월인석보 2:50)

6) 고대국어의 경우는 알타이제어와의 비교에 의하여 '-ㄴ, -ㄹ, -ㅁ' 동명사형어미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기문(1972=1983:21-2)을 참조할 것.

(3) 法華經을 듣고져 흐는다(월인석보 18:75)

(4) 이 男子 | 精誠이 至極홀씨 보비로 아니 앓기눅다(월인석보 1:11)

‘흐느니라’에서 ‘니’가 빠진 ‘흐는다’가 있으며 ‘니’를 대신하여 ‘웃’이 결합된 ‘흐눅다(앗기눅다)’가 중세국어에서 나타난다.

2.2. 시제의 관점

이승녕(1961=1983)은 話者의 敘述態度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것을 통틀어 敘法(MOOD)라 하고 ‘-니-’를 ‘규정법’이라고 하였다. ‘규정법’은 어떤 행동을 ‘객관적 사실로 진술’하는 것을 나타내는 서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증거나 명시적인 논증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법’을 반박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래의 예문의 경우는 ‘객관적 사실로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

(5) 내 아랫 뉘에 이 經을 바다 디너 닐그며 외오며 늬드려 니르디 아니 흐더든 阿彌多羅三藐三菩提로 썰리 得디 몰흐리니라(석보상절 19:34)

위의 예문에서 주절의 서술어는 실제의 사건과는 반대되는 가상적인 사건을 나타내므로, (5)에 나타난 ‘-니-’가 ‘객관적인 사실로 진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2.3. 시제의 관점

이것은 ‘-니-’를 시제(때매김)의 형태소로 간주하여 그 기본적인 기능을 ‘확정법’으로 보고, ‘-느-, -더-, -리-’ 등이 올 경우에는 ‘-니-’의 본 기능은 사라지고 이들 형태소의 기능을 강조해준다고 보는 견해다.⁷⁾

(6) 다서 說法호시니 羅囊의 匹수미 여러 아니라(석보상절 6:11)

(7)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씨 모로매 늬느니라(석보상절 11:36)

(8) 諸法이 幻 空호니 幻 空홀도 得디 몰흐리니라(원각경 하 2-2:11)

(9) 金부풀 티면 十八億 사르미 다 몰더니라(석보상절 6:28)

(6)의 경우는 ‘-니-’가 ‘확정법’의 기능을 지니고, (7)의 경우는 ‘현실

7) 허 웅(1975:877-8, 882-7, 905-22)을 참조할 것.

적인 사실임을 ‘확인, 강조’하는 구실을 하고 (8)은 ‘미정적인 사실’을, (9)는 ‘지난적에 일어난 사실’을 확인, 강조해 준다고 설명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니-’가 시제를 표시한다면 시제와 관련된 ‘-느-, -더-, -리-’ 등과 서로 대치되는 관계(제열관계)를 이루어야 할텐데, (7), (8), (9)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 둘째, ‘-니-’의 기본적인 기능이 다른요소의 결합에 의해 그 기능이 다른 것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3. 이원론적인 관점

고영근(1981:29-32, 93-4)은 의문문의 ‘-니-’와 평서문의 ‘-니-’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형태소의 자격을 주지않고,⁸⁾ 후자의 ‘-니-’를 시제와는 무관한 서법의 형태소로 간주하며, 그것의 의미기능을 ‘원칙법’으로 간주하였다.

(9) 舍利弗아 너희 부텃 마를 고디 드르라 거즈디 아니하니라(석보상절 13:47)

(9)는 話者인 세존이 부처의 법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원칙적(규범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사리불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태에 대한 화자의 원칙적인 태도가 ‘-니-’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니-’를 서법의 태두리 속에 넣고 ‘원칙법’이라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같은 이원론적 관점은 앞에서 제기되었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으나, 서법의 의미와 관련하여 또다른 문제를 낳게 되었다.

(10) 市嬌는 在成都西南한다(두시언해 7:6)

(11) 碧鷄坊은 在成都하니라(두시언해 7:5)

둘다 ‘西郊’라는 五言律詩의 註釋文으로 (10)의 ‘한다’나 (11)의 ‘하니라’는 의미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영근(1981:12)에서는 (11)의 ‘-니라’를 더이상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설명법이 미 ‘-다’와 문법적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둘째설명법

8) 자세한 것은 고영근(1981:31)을 참조할 것.

어미라고 하였다.⁹⁾

둘째설명법어미의 설정은 原則法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또한 두가지의 문제점을 낳았다. 우선 둘째설명법어미 설정의 잇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1)과 같이 '원칙'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니-'들을 원칙법에서 제외시켜 의미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통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니-'가 대체로 일인칭 주어와는 共起하지 않는 제약이 있는데,¹⁰⁾ 이러한 '일인칭 주어제약'을 여기는 몇몇 예외들이 있었다.

(12) 내 毗奈耶에 몬져 ㄹ초미 이쇼니라(능엄경 7:22-3)

(13) 너를 외에 아니 호노니라(사범어 언해:3)

(12), (13)에 나타나는 '-니-'를 둘째설명법 어미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니-'가 '일인칭 주어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통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니-'는 구조적인 형태소 분석조건(계열관계, 통합관계)을 만족할 뿐 아니라 통사적인 제약조건과 의미적인 일관성을 갖추었으므로 '원칙법'의 설정에 대한 문법적인 근거는 충분해진 셈이다.

그러나, 둘째설명법어미의 설정이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 첫째, 둘째설명법어미 '-니라'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니+라'로 분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구조적인 양상을 중시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해결해야 한다. '-니라'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구조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니+라'로 분석할 경우에는 이 '니'가 원칙법의 '-니-'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둘째설명법어미를 중세국어에서 설정할 경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라졌으며 다른 어미와는 달리 왜 그것의 수명이 짧은지에 대한 통사적인 설명이 있어야 둘째설명법어미의 설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설명법어미의 설정으로 인하여 해결한 여러가지 문제들도 이것의

9) 둘째설명법어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82)을 참조할 것.

10) '-니-'의 인칭제약에 대해서는 허 용(1975:762-3, 798-800), 고영근(1981:12-3) 등을 참조할 것.

설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4. 공형태(空形態)와 비문법화(非文法化)

문법층위의 기본단위 중의 하나는 문법형태소(약칭 M)다.¹¹⁾ M들을 발견하여 그 목록들을 작성하고, 무수한 M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대체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문법론의 과제다. M은 추상적인 문법층위의 단위로 구체적인 음성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한 화자의 머리 속에 있는 M이 다른 화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음성형식을 부여받아야 한다. M에게 음성형식을 부여하는 작용이 실현규칙(약칭 R)이다. M이 R의 적용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형태(약칭 M')가 된다.¹²⁾ 이상의 관계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M) \rightarrow M'$$

위의 관계는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 <1> $R(M_1) \rightarrow M'$
- <2> $R(M_1) + \dots + R(M_n) \rightarrow M'$
- <3> $R(M_1) \rightarrow \emptyset$
- <4> $R(M_1) \rightarrow M'_1 + \dots + M'_n$
- <5> $R(\emptyset) \rightarrow M'$

<1>, <2>, <3>, <4>의 경우는 이때까지 잘 알려진 것들이다. <1>은 하나의 형태소가 단일형태(單一形態)로 실현된 것이며, <2>는 여러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화합형태(化合形態)를 말한다.¹³⁾ <3>은 영형태(零形態)의 경우를 말하고,¹⁴⁾ <4>는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가지 이형태(異形態)들로 실현된 경우이다.

11) 한국어에서 통사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들은 문법형태소와 어휘소(lexemes)로 가정할 수 있다. lexemes의 개념에 대해서는 Brown, E.K. & Miller, J.E.(1980=1983:166, 174, 231)을 참조할 것.

12) 줄고(1989a:10)을 참조할 것.

13) 중세국어의 화합형태의 분석에 대한 실재는 줄고(1989b)를 참조할 것.

14) 영형태의 설정에 대해서는 줄고(1989a:10-1, 56-65)를 참고할 것.

〈5〉는 아무런 문법적 기능을 지니지 않으면서 형태만 존재하는 경우다. 이러한 형태를 공형태(空形態)라고 하자. 공형태는 영형태와 정반대가 되는 셈이다. 영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이는 ‘도깨비’에 비유된다면, 공형태는 눈에 보이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인 셈이다.

이러한 공형태의 설정은 ‘-니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빛을 비춘다.

(14)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씨 모로매 늘느니라(석보상절 11:36)

원칙법의 ‘-니-’는 확인법¹⁵⁾ ‘-거-’와 감동법¹⁶⁾ ‘-dot-’과 함께 부차서법에 속하는데, 일인칭주어를 회피하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원칙법의 ‘-니-’는 일인칭과 일치하는 선어말어미 ‘-오-’와는 통합할 수 없는 것이다.

(15) 내 毗奈耶에 몬져 7르쇼미 이쇼니라(我 | 毗奈耶에 先有願敎호니라)(능엄경 7:22-3)

(15)의 ‘니’는 일인칭의 주어와 함께 쓰였다. 따라서, 원칙법의 ‘-니-’와는 그 분포가 다르다. (15)의 ‘니’를 고영근(1981:12)에서는 하나의 형태로 분석하지 않고 둘째설명법어미 ‘-니라’의 부분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5)의 ‘니’는 형태분석의 기준인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

(16) 내 버되 아드리로소니 저머 머리 뒤야실계 居諸에 니어 이쇼라(두서언해 22:45)

(16)의 ‘이쇼라’를 (15)의 ‘이쇼니라’와 비교하면 ‘니’가 분석된다.

(17) 내 천량 庫藏을 이제 맛뎡 더 잇거다(월인석보 13:15)

(17)의 ‘잇거다’를 (15)의 ‘이쇼니라’와 비교하면, ‘잇’과 ‘이시’는 같고 ‘잇거다’의 주어는 ‘더’로 3인칭이어서 ‘-오-’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잇거다’의 ‘거’와 ‘이쇼니라’의 ‘니’는 서로 대치될 수 있는 환경

15) 고영근(1981:32-8)을 참조할 것.

16) 고영근(1981:38-46)을 참조할 것.

이다.

(15), (16), (17)의 비교를 통하여 ‘이쇼니라’의 ‘니’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형태는 (14)의 ‘니’와는 그 기능과 분포가 다르므로 동일한 형태가 아니다. 사실 (15)와 같은 ‘니’는 어떠한 문법적 기능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영근(1981:12)에서는 ‘-니라’를 ‘-다’와 문법적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처리는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형태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15)의 ‘-니라’는 ‘-니-’와 ‘-라’로 분석된다. 이때의 ‘니’는 아무런 문법적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형태(空形態)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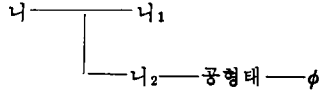
공형태의 설정으로 ‘-니라’를 구조적인 분석기준에 따라 ‘-니+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때의 ‘니’가 원칙법의 ‘-니-’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둘째설명범어미의 설정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형태만 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공형태의 존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존재이유를 밝히기 어렵다. 공형태의 존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통시적인 과정이 비문법화(非文法化)다.

원래는 문법형태소가 아니었던 것이 문법형태소로 변하는 현상이 문법화(文法化)다. 예컨대, 중세국어의 ‘-습-’은 ‘습(白)’의 문법화¹⁷⁾에 의한 것이다. 이것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비문법화(非文法化)다. 즉, 어떤 문법형태소가 문법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문법화는 어휘적 요소가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어 그 의미가 점차 추상화되어 문법형태소로 정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비문법화는 이와 반대로 생산적으로 사용되던 문법형태소가 점점 비생산적으로 사용되어 그 문법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니-’는 이른 시기에는 단일한 기능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던 ‘니’가 설명범어미 ‘-다’와 결합하여, ‘니라’가 마치 한덩어리처럼 쓰이다가 그 속에 든 ‘니’가 독자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공형태로 변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형태 ‘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

17) 안병희(1967:206-7)를 참조할 것.

지게 되는데,¹⁸⁾ 공시적으로 아무런 문법기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니’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남은 문제들

중세국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니-’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일원론적인 관점에서 형태의 확인과 확인된 형태의 의미해석을 다각도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원론적인 방법들에 따르면, 구조적인 양상이 다른 이질적인 ‘-니-’들을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 제대로 기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 시도가 이원론적인 접근방법이었다. 구조적인 양상에 근거한 이 방법은 일원론적인 접근방법들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부수적으로 나타난 둘째 설명법어미의 분석문제와 그것이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필자가 제안한 ‘공형태’의 설정이다. ‘공형태’의 설정만으로 위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형태’의 존재가 ‘-니라’의 ‘니’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존재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공형태’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高永根(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敘法』 탑출판사.
 高永根(1982), 冠形詞形語尾와 敘述性語尾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관악어문 연구 7.
 金永旭(1989a), 『中世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89.

18) 둘째 설명법어미의 소멸과정은 고영근(1982:43-50)을 참조할 것.

- 金永旭(1989b), '-소서'와 形態素 分析, 李庸周 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 金完鏞(1957), -n, -l 動名辭의 統辭論的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 國語研究 2.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安秉禧(1967), 『韓國語發達史(文法史)』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李基文(1972=1983), 『國語史 概說 (改訂版)』 탑출판사.
- 이승녕(1961=1981), 『中世國語文法』 (改訂增補版) 을유문화사.
- 任洪彬(1982), 動名詞 構成의 解釋方法에 대하여, 신구문화사(백영 정병옥 선생 환갑기념 논총)
- 허 용(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Brown, E.K. & Miller, J.E. (1980) 『Syntax: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Sentence Structure』 Hutchinson
- Bybee, J.L. (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Nida, E. (1949=1978) 『Morphology』 Ann Arbor
- Palmer, F.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stedt, G.J. (1937) 『A Korean Grammar』 Helsinki